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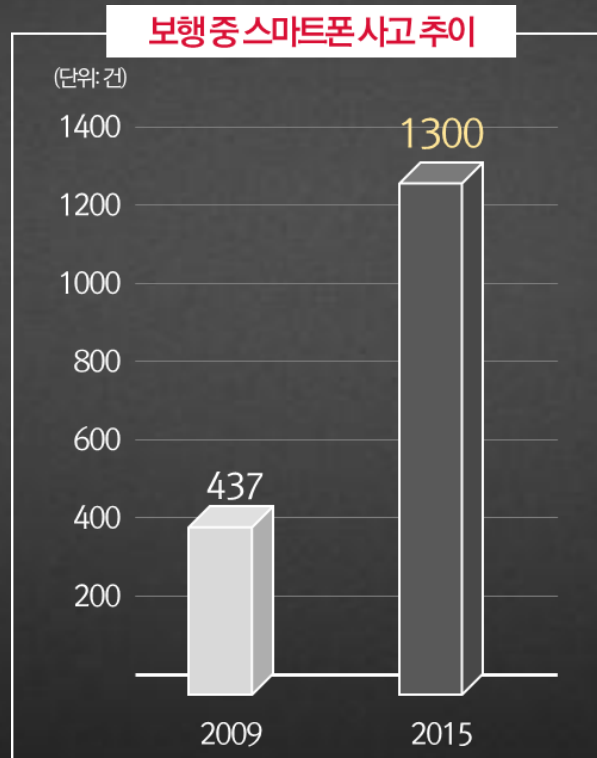
서울시 NPO 지원센터
공익활동, 더 쉽고 즐겁게

스몸비 안전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획서

2016.12.02

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 6년 동안 3배 증가

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
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도 같이 증가



자료: 교통안전공단

교통안전공단, 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제안

스몸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
교통안전공단은 스몸비 연구 및 정책제안
현재 서울시는 스마트폰 사용제한 표지판 시범설치 운영 중

무단횡단 및
스마트폰 사용 실태조사
용역 최종보고서(2016)



보행 중 스마트폰 사고 방지를 위한 5가지 정책 제안

-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안전시설물 설치확대(표지판)
-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 시 범칙금 부과
- 노면 신호기 설치
- 스마트폰 사용 전용길 도입
-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쉼터 조성

서울시, 5개 지역 표지판 시범 사업 운영

10~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 잦은 5개 지역에 설치
(시청앞, 연대앞, 홍대앞, 강남역, 잠실역)
전략 '위험 노출 이미지화+안내 문구'

표지판



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

보도부착물



안전하게

하지만 관리도 안 되고 외면 받고 있는 상황

스몸비들은 스마트폰 보느라 보도 부착물 외면
보도 부착물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흉측한 형태로 훼손



보도 부착물을 무시한 채 스마트폰을 보고 보행

출처: 문화일보(16.06.2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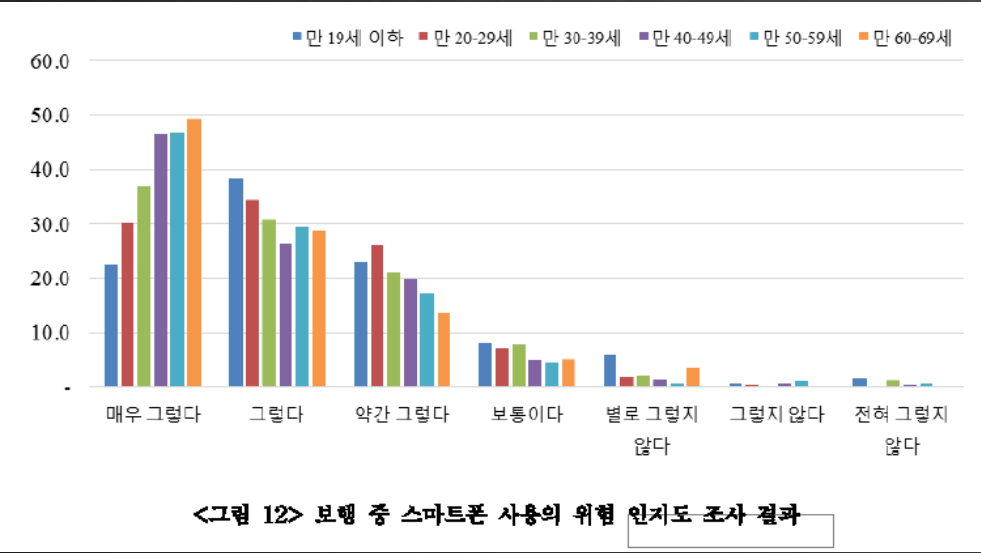


서울시청과 홍익대 근처 붙어있는 스마트폰 사용주의 보도부착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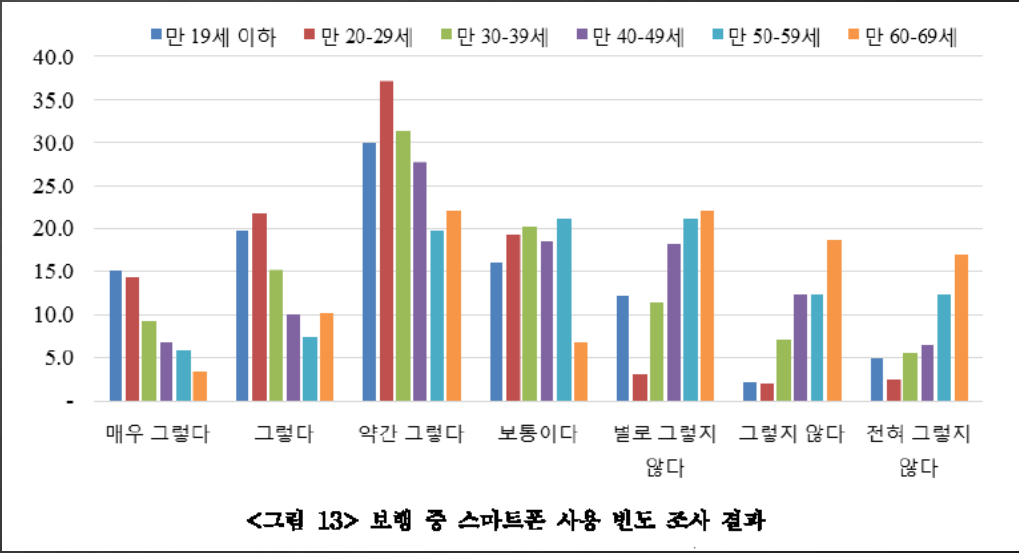
출처: 아시아경제(16.10.14)

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전략

전 세대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고 인지
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용



출처: 교통안전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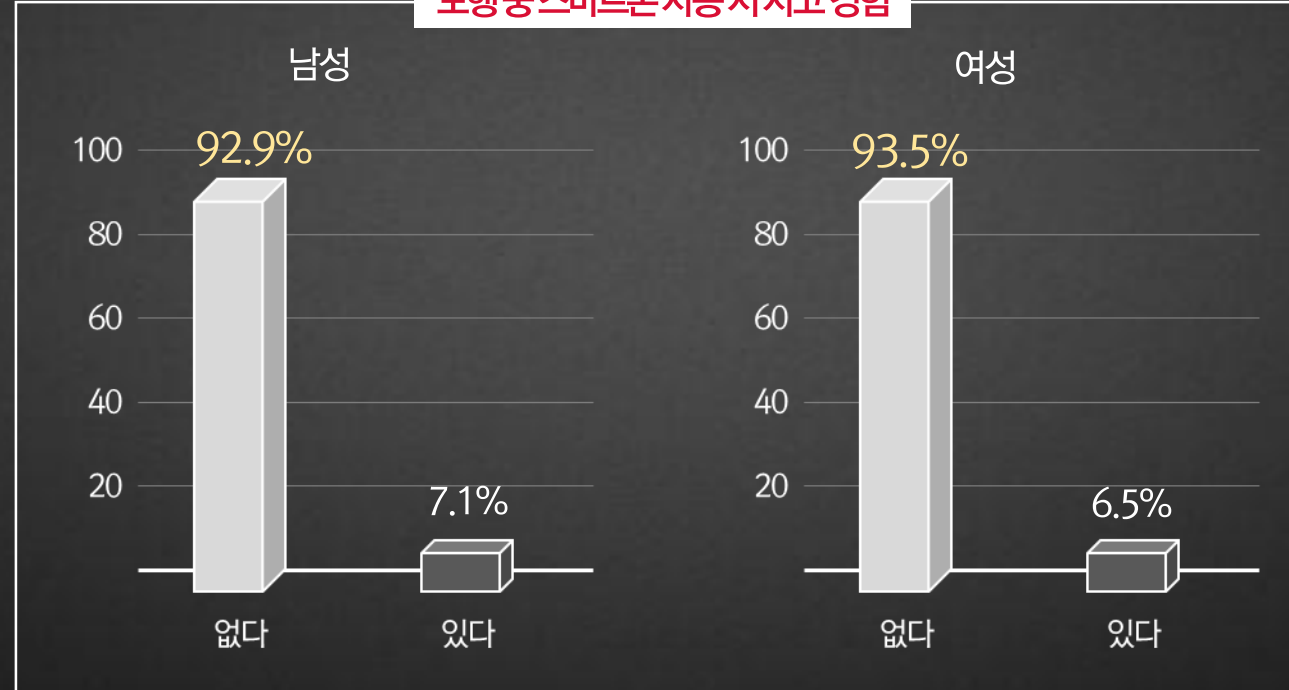


출처: 교통안전공단

그럼에도 스몸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

스마트폰 사고는 나한테 일어날 확률은 지극히 적다!
“안전불감증”

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시 사고 경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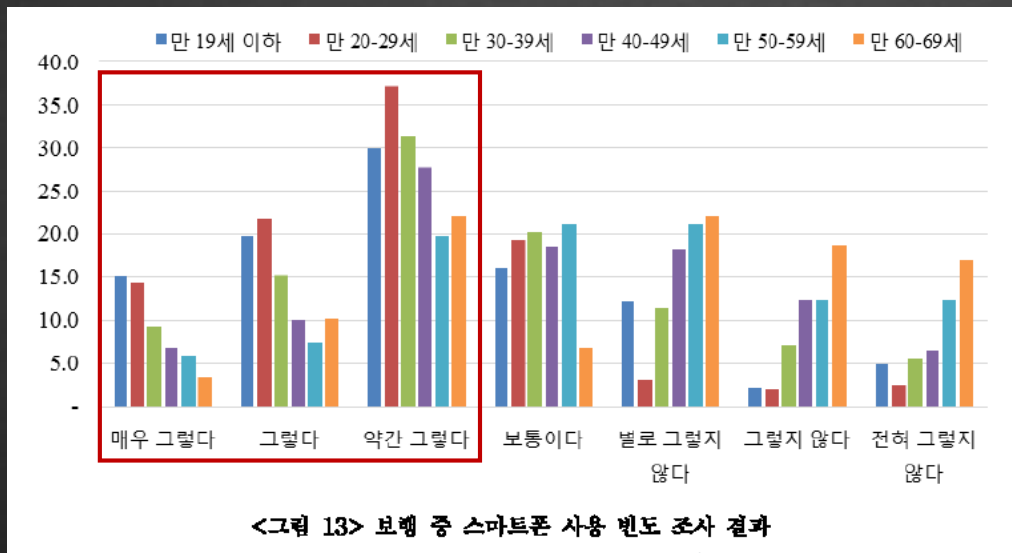
출처: 교통안전공단



안전불감증 사람들에게 위험소구는 효과적이지 못하다.
그렇다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취할 것인가?

20대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빈도 가장 많아

20대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이유는
활동 시간의 4분의 1 가량을 스마트폰 사용하는 헤비유저이기 때문



<그림 13>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빈도 조사 결과

출처: 교통안전공단



출처: 와이즈앱

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자각시켜주는 것이 효과적



이름: 김지혜
나이: 22
성별: 여
직업: 대학생

주 사용 앱:
카톡, 피카캐스트,
네이버웹툰, 벅스,
페이스북 등

“스마트폰 헤비유저” -하루의 시작과 끝을 시리(Siri)와 함께

Needs: 스마트폰으로 무료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다

주요 특징

- ① 무료한 건 못 참아
 - 주로 심심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
- ② 나는 트렌디한 여성
 -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 중요시 여긴다
 -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하고,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
- ③ 스마트폰에 대한 경계심
 -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다닌다
 - 스마트폰 사용중 사고날 뻔한 경험이 있어서,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.

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동기

아무것도 하지 않는
시간을 못 견뎌서

시나리오

- 동성 혹은 이성친구와 카톡을 한다
- 보고 있던 웹툰이나 기사를 이어본다.
- 페북에 접속한다.
-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걷는다.



어떻게 하면 보행 중
스마트폰 사용을
자제하게 할 수 있을까?

성인은 자기 스스로
절제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
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직접
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

출처: 경향일보(13.10.01)

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는
방법은 자신의 사용행태를
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

출처: 매니투데이(15.04.02)

스마트폰에 의존하지
않으려면 자기 통제력이
가장 중요합니다.

출처: KBS(16.06.21)

스마트폰 헤비 유저에게는
객관화된 자기 모습을
보여줌으로써 자기 통제력
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

커뮤니케이션 목표

“스몸비 모습을 객관화시켜 보여주자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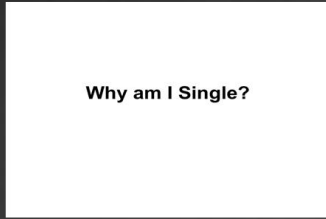


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

B급 유머 코드로 바이럴 영상 제작하여 대중 관심을 높임
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창피함을 느끼게 하여 태도 변화 유도



#1.
신비한 분위기의 방에 도사가 앉
아있다.



#2.
예쁜 여대생이 방으로 들어와
앉는다.
도사는 왜 왔냐고 물어보고,
지혜는 자신이 연애를 못하는
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한다.



#3.
도사는 점을 치기 위해
수정구슬을 사용한다.
수정구슬을 통해 자신의 모습
이
나온다.
(구슬 안 영상으로 클로즈업)



#4.
지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
길을 가고 있다.



#5.
보행자랑 부딪힐 뻔 하는데 지
혜는 모르고 앞만보고 가고,
부딪힐 뻔한 시민은 인상을
찌푸리는 모습이 보인다.



#6.
한 멋진 남성이 호감을 가지고
여대생을 뒤따라 온다.
하지만 핸드폰을 사용하느라
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
핸드폰을 사용한다.



#7.
남성이 말을 걸지만 이어폰 때
문에 듣지 못한다.



#8.
배설물을 밟고 넘어질뻔 하고
차량이 급정거하는데도 그냥
핸드폰만 보고 가는 등 전형적
인
스몸비의 모습을 보여준다.



#9.
그 모습에 호감이 떨어졌던 남
성은 그냥 그녀를 앞질러서 지
나쳐간다. 지나치는 순간 그녀
와 부딪히지만 그녀는 떨어질
뻔한 핸드폰만 다시 부여잡는
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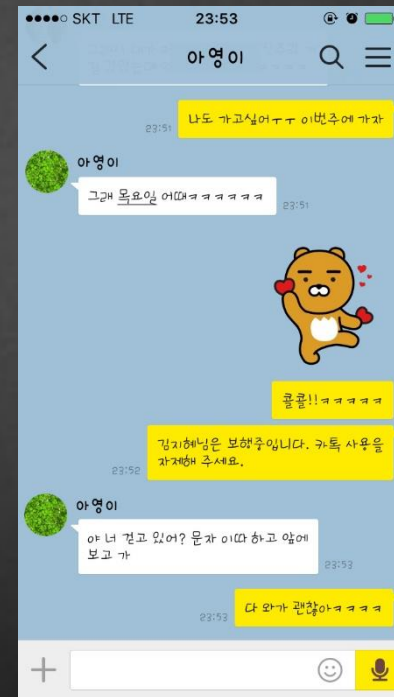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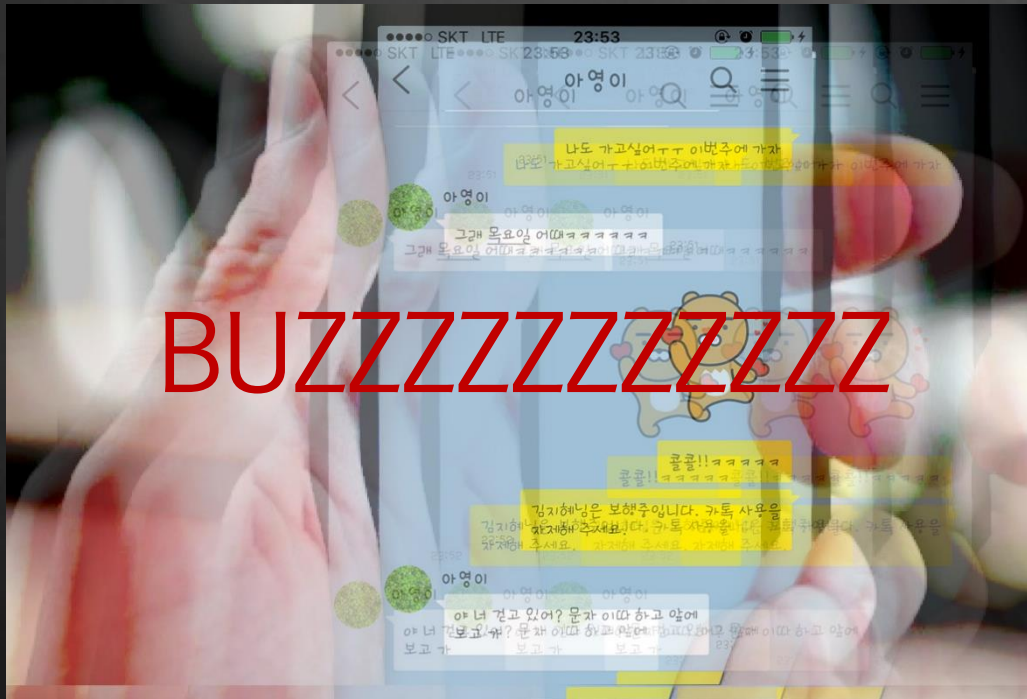
#10.
남성은 그렇게 멀어지고 수정
구슬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
온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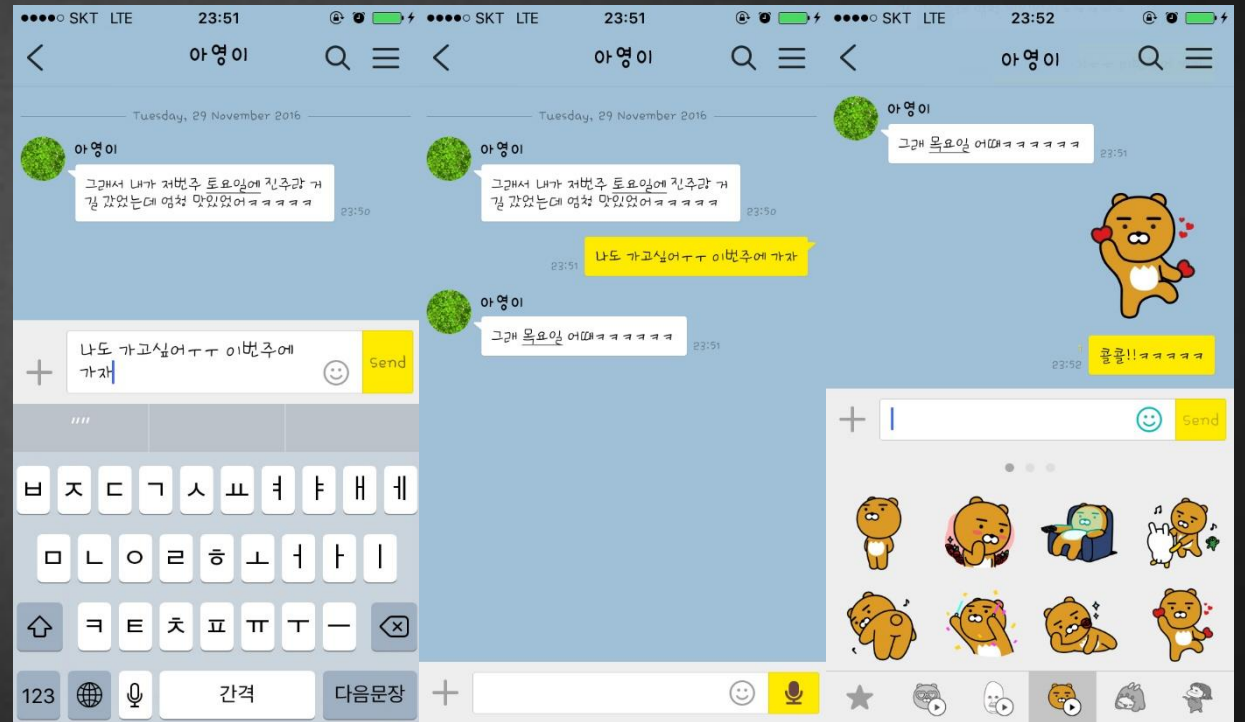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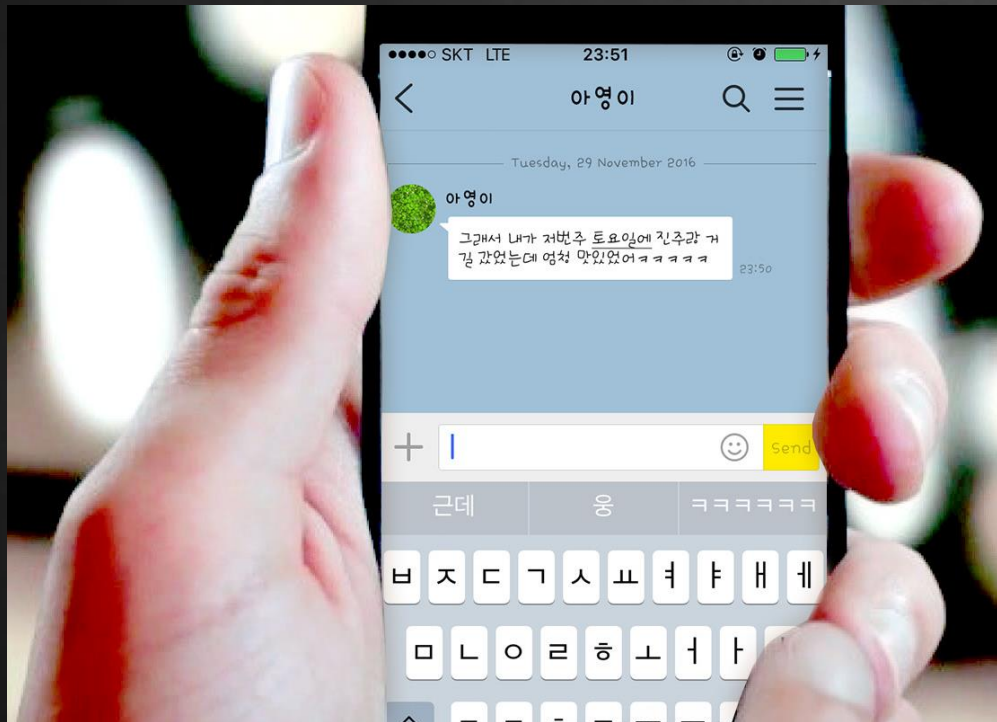
#11.
자신의 그런 못난 모습을 처음
본 여대생은 충격을 받는다.

Walking Buzz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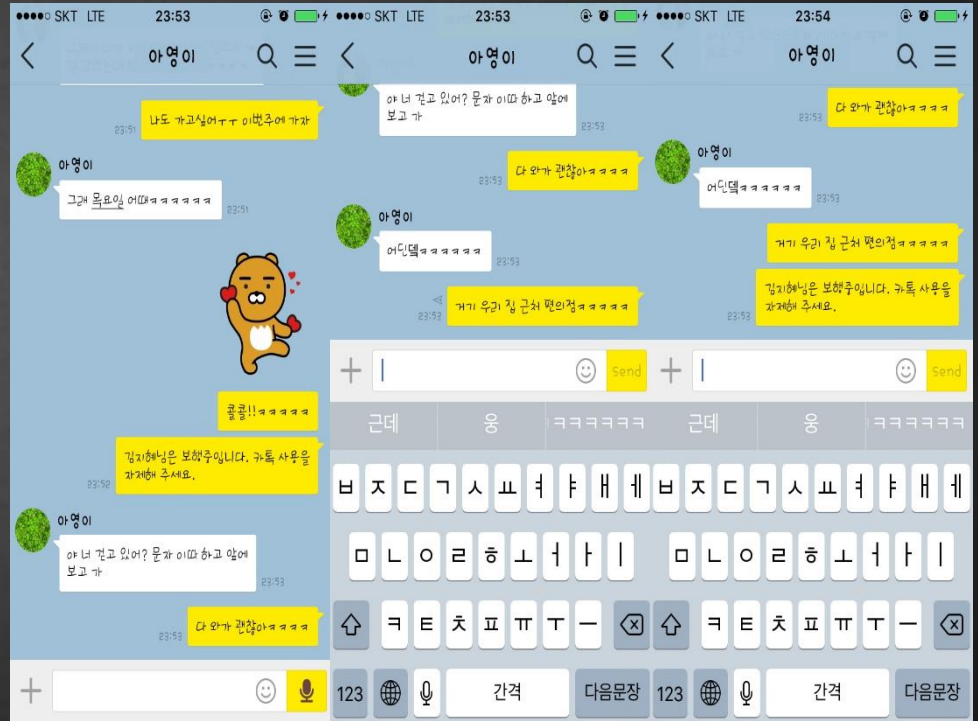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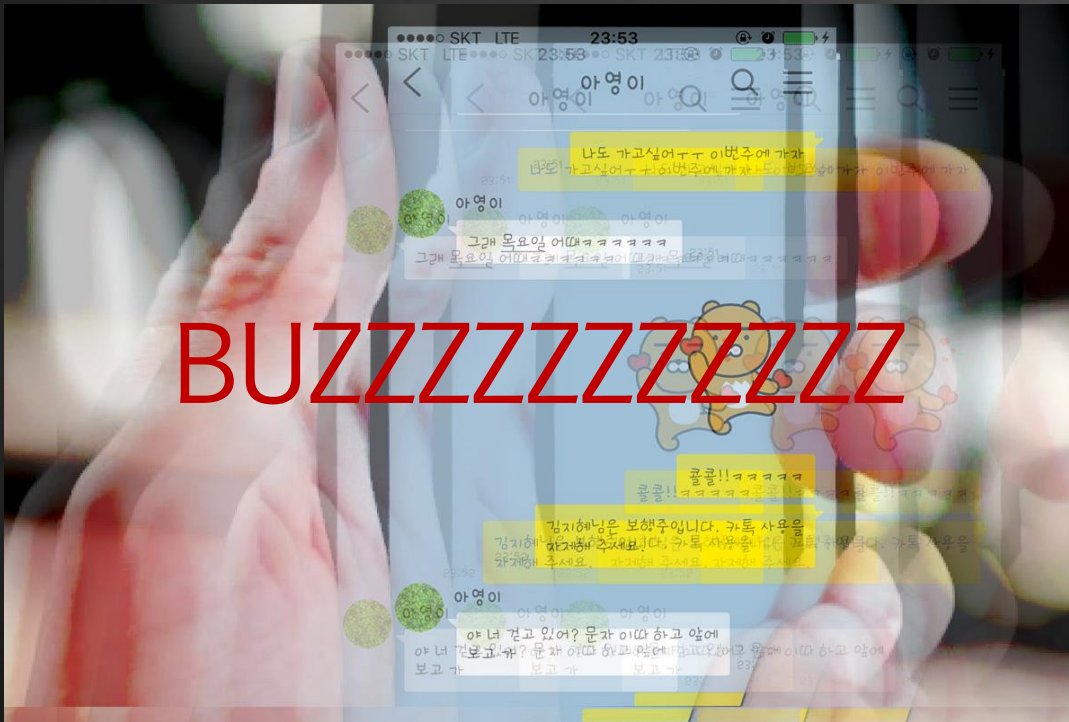
20대는 대부분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에 착안
대화 상대에게 내가 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30초에 한번씩 자동으로 알려줌
일정한 보수대로 진동을 울리게 하여 폰을 들고 있음에 불편을 느끼게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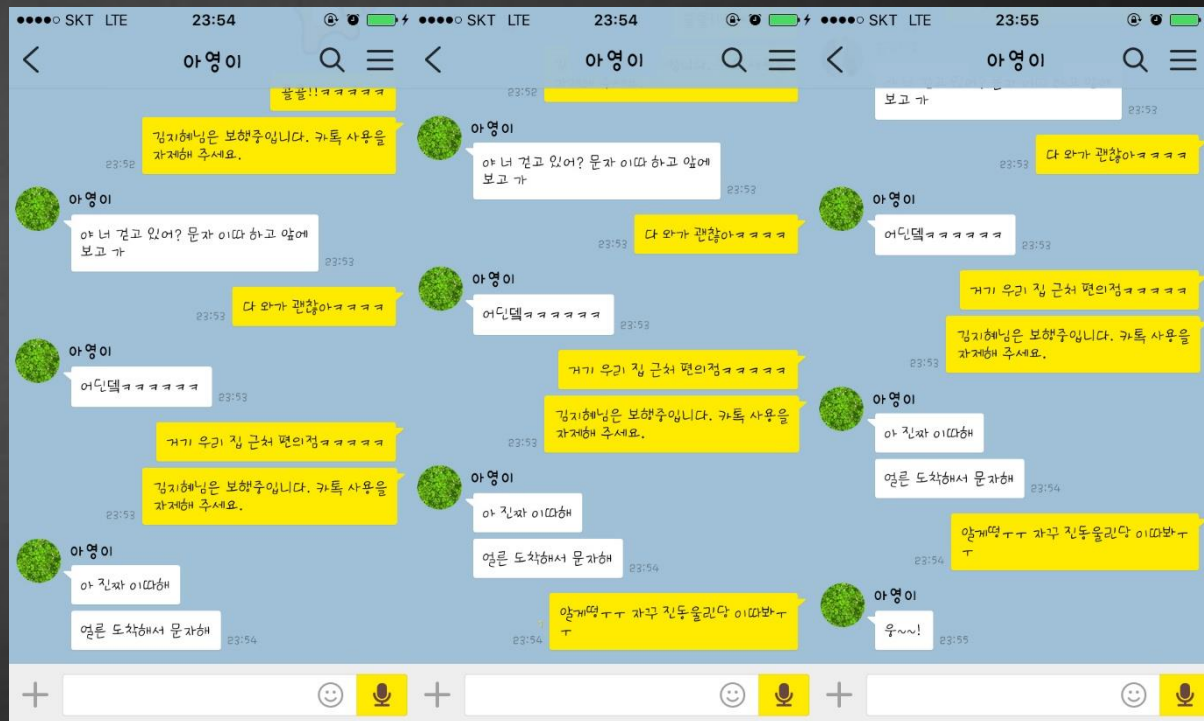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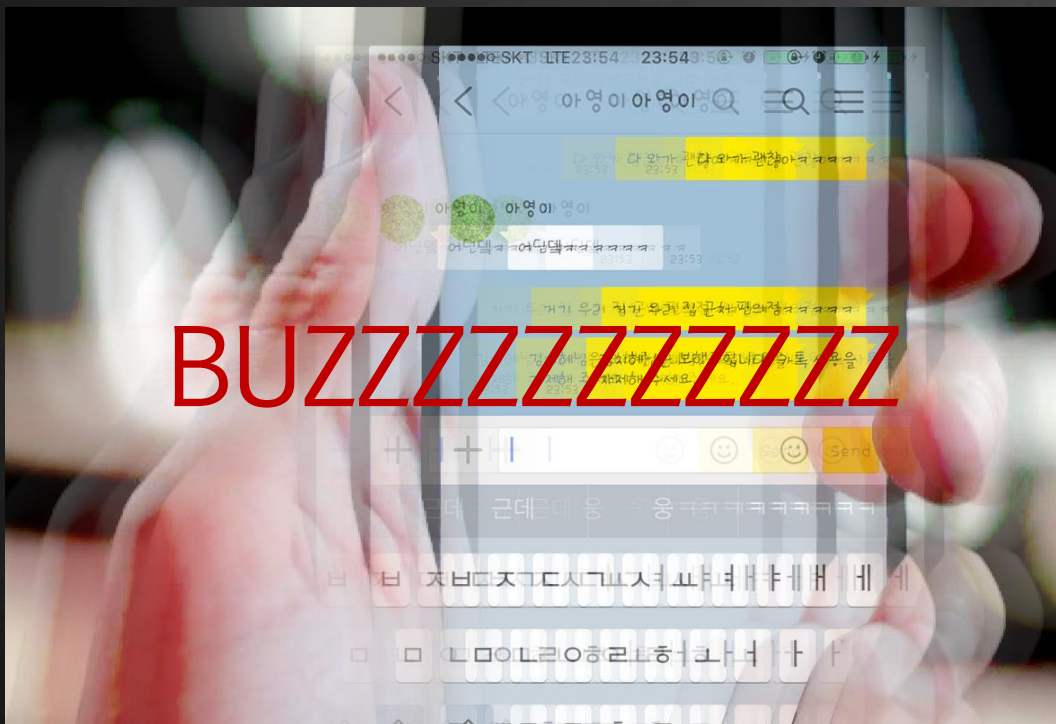
Appendix. Walking Buzzer 사용 예



Appendix. Walking Buzzer 사용 예



Appendix. Walking Buzzer 사용 예



감사합니다